이러한 사회적 조건에서 예수가 '보잘것없는 이들'의 편을 든다는 것은 기존의 주권 질서에 대한 진정한 도전 이었다.

▶ 혁명적 새로운 세계 이해가 인간의 공생이라는 도덕적 요구 앞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가?

► 사람을 진정 구원하려는 창조적 역동성이라는 누룩이 인간 공동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?